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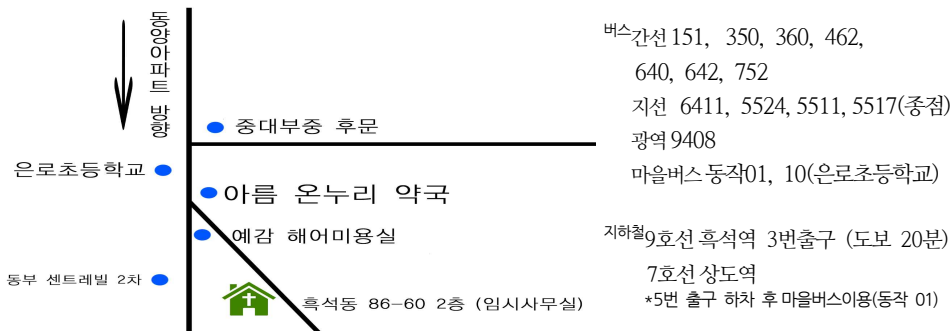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김 대 희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윤 익		(2호) 세종 선한교회
	한 배 선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06987 서울 동작구 서달로 110-10 2층 (흑석동 86-6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
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
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
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 경배		37장 (통일찬송가 37장)	
교독문		교독문 30번(시편 67편)	
찬양과 경배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	
예배기도		김대희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갈라디아서 5:22~23	
설교		성령의 바른 열매 (임춘배 목사)	
헌금드림		고상돈 구영서 김재준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씀봉독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 (신명기 17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성전건축기도	조속한 준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직회	다음 주일(9월2일) 예배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3. 교우동정	김대희 장로/ 서예미술대상전 서예부분 서울미술협회 이사장 상 수상.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서초구 서초동 1355)에서 전시 중 (8/27까지)	
4. 매일성경강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5. 정오기도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준비안내및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관악셀 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강북,강서셀 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경강론 범위						
8/27	8/28	8/29	8/30	8/31	9/1	9/2
	신명기 15장	신명기 16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18장	신명기 19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가정예배

“나는 어느 편인가”

찬송 : ‘너 시험을 당해’ 342장(통 395)

본문 :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표적을 구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통해 떡을 얻어먹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표적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이들과 같은 표적을 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동기는 사뭇 다르지만 모두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동기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따르는 신앙이나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기적을 추구하는 것 둘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 동기가 어떤 편에 속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엄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지갑에서 나오는 용돈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갑에서 용돈이 나오지 않는 순간 그 사랑은 식어버릴 것입니다. 엄마도 자녀도 모두 불행한 관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갑’을 노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정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는데도 계속 표적을 보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올바른 신앙의 동기를 갖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 돌아보고 회복하는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성령의 바른 열매 (갈5:22-23)

서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며 성령의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 바른 성령의 열매는?

(1) 어떤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마12:33).

(2)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다.

(3) 한국교회가 맺은 열매는? ①번영신학(기복신앙) ②무분별한 성령(은사)운동 ③세속주의 등

(4) 성령의 참된 사역을 구별하는 5가지 성경의 원리(요일4:1-8):

①그리스도를 높이는가? ②세속주의를 반대하는가? ③....

본론

2. 교훈

(1) 성령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기억하자.

(2)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자.

(3)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인내와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

결론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바른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김대희 장로	유신웅 장로
헌금위원	고상돈 구영서 김재준	고상돈 구영서 김재준
안내	관악셀	강북, 강서셀

매일 성경 강독		안식년과 초태생 규례	날짜 : 8월 28일
찬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8장/통일 찬송가 349장)		
통독	신명기 15장		
본문 내용	본장은 안식년 규례를 다루고 있다. 안식년 한 해 만이라도 채무이행을 일시 면제해 줄 것을, 굳이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을 원래는 히브리인끼리는 서로 노예삼을 수 없으나 채무 대신 임시로 노예된 자를 안식년에는 필히 해방시켜줄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수컷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다루고 있다.		
생각해보기			
1	안식년 규례 (1) 매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라 (2)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3) 동족으로서 종이 된 자를 제7년째 되는 해에 자유하게 놓아주라 (4)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된다. (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2	초태생 규례 (1) 출애굽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을 살려주신 구속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규정 (2)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먼 것은 드리지 못함 (3) 인류를 대속할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심을 예표함과 동시에 우리 역시 자신을 흠없고 티없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교훈한다.		
핵심 단어	기업 - 성서에서의 기업은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가문의 소유로 인식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는데, 이것은 원래 정복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선물)로 생각되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 ”
찬양과 기도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 인애하신 구세주여(279장/통 337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어떤 화가가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들판에서 대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완성된 그의 그림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캔버스에다 같은 장면을 다시 한 번 그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완성된 그림에서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가 두 그림을 한참 동안 비교하며 살핀 끝에 원인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명암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햇빛에 드러난 자연의 밝은 모습만을 그린 것에 반해, 두 번째 그림에는 그늘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까지 그렸던 것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그림을 명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활력이 있는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고, 거무죽죽한 나뭇가지에서 형형색색의 과일이 열리듯 고통으로부터 건강의 기쁨이 오고, 잃어버린 슬픔에서부터 성취의 만족을 맛보며, 갈등의 쓰라림을 딛고 화해와 일치의 감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없이 평온하기만 한 삶은 신앙의 나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생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김인철, 「생각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엠마오) 고난을 통한 유익은 무엇인가요? 고난 없이 평안만 누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말씀 나누기	이사야 10:20~34	
묵상포인트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일 뿐입니다. 앗수르는 잠시 하나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나,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의 징계를 받은 후에는 소수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누구며, 그들이 진실하게 의지하는 이는 어떤 분인가요?(20~22절)	
적용하기	앗수르가 공격해 올지라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4~25절)	
함께 기도하기	불의와 교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경해 섬기던 반쪽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겨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도피성, 경계표, 위증		날짜 : 9월 1일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191장/통일 찬송가 395장)			
통독		신명기 19장			
본문 내용		본장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살해한 과실 치사범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규례 및, 만약 이 규례를 악용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면 문자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자를 처벌하라는 규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누구나 땅을 분배 받을 터인데 이를 부당히 옮기지 말라는 경계, 사회 정의;에 대한 규정이 제시된다. 그리고 재판 및 각종 사회 생활에서 중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증언에 문제가 있어서, 위증하는 자는 엄중 처벌하여 사회 질서의 확립에 힘쓸 것을 규정한다.			
생각해보기					
1		도피성 제도 (1) 고의성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할수 있도록 함 (2)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비록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함 (3)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함			
2		경계표 규례 (1) 각장의 땅을 구분 짓기 위해 표시해 놓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 (2) 이웃의 땅을 탐하여 경계표를 옮겨 놓으면 안된다. (3)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속임수나 교묘한 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			
3		증인 제도 (1)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검증된 결과에 의해 재판하기보다 대개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여 재판을 진행함 (2)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당하게 됨 (3) 재판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 서로의 증언이 일치할 때에만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하고 위증 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함 (4) 늘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			
핵심 단어		위증하는 자 - 직역하면'어떤 사람에게 대한하는 사악한 증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위증하는 자'란 단순히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인 양 꾸며 내어 거짓 증거하는 자를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는 음모로 거짓 증언하는 자를 가른다.			
		핵심 단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도시간					

매일 성경 강독		3대 절기 규례	날짜 : 8월 29일
찬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300장/통일 찬송가 147장)		
통독	신명기 16장		
본문 내용	본 장은 소위 히브리인의 여러 절기 중에서도 특히 3대 절기로 꼽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유례를 종합 재시하고 있다. 본장은 각 절기의 개별적 의미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영원히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킴으로써 그 일상 생활 중에 정기적으로 각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의미를 되새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3대절기 규례 (1) 20세이상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중앙 성소에 올라가 3대 절기를 지켜야 함: 유월절,칠칠절,초막절 (2)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힘대로 드려야 함(17) (3)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의 삶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2	재판에 대한 규례 (1) 재판관들은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 (2)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3)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20)		
핵심 단어	누룩 - 소제물(레 2:11)에나 유월절(출 12장)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려지는 경우(레 7:13)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경우(레 23:17),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는 경우(암 4:5)는 누룩이 사용되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20장/통일 찬송가 377장)
통독	신명기 17장
본문 내용	먼저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로 드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발생할 때에 이는 전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문제이나, 그 개인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심판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얻기 위한 재판에 있어서의 상소규례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왕정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왕의융립 원리, 왕의 금기사항, 왕의 의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흠 없는 제물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함 (2) 모든 제물은 흠 없고 거룩한 어린양 그리스도를 예표함 (3) 하나님께 마땅히 나의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
2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 (1) 우상숭배자는 죽이되 반드시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2) 지방 재판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성소의 제사장 등으로 구성된 재판정에 상소하고 송사의 당사자들은 그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3) 사법부는 사회질서 유지와 공의 실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에 반드시 순복해야 한다.
3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1)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지만 백성들이 주변국가의 영향을 받아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함 (2) 왕의 조건: ①반드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②왕은 병마(군사력)와 아내(향락/우상숭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부/권력/착취) 많이 쌓아두면 안됨 (3)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섬겼고 그 결과 왕들에 의해 지배와 억압을 당함
핵심 단어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를 방지할 경우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행태와 실상을 낱알이 공개함으로 모든 백성에게 경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레위인과 선지자에 관한 규례	날짜 : 8월 31일
찬양	고통의 멍에 벗어나고 (찬송가 400장/통일 찬송가 330장)		
통독	신명기 18장		
본문 내용	먼저 선민 공동체, 즉 신정 왕국 내에서 일종의 종교 공무원으로서의 정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다룬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순종할 것을 지시하는 규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내신 것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기도 하다.		
생각해보기			
1	레위인과 제사장 분깃 (1) 형제 중에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됨 (2) 하나님께서 지정한 화제물과 소산의 십일조 및 감사예물 등이 그들의 몫 (3)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나의 몫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자.		
2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 (1)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는 이방(거짓) 선지자임 (2)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밝혀줄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3) 참선지자 구별: ①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함 ②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함 ③말씀의 성취와 증험 있음 (4)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자.		
핵심 단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 - 신명기 18:9-14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복술, 길흉을 말하는 것, 요술하는 것, 무당 행위, 진언하는 것, 신접하는 것, 박수, 초혼하는 것 등을 가증하다고 하셨다. 또 하나님은 식용으로 부적당한 동물이나 곤충을 말씀하시며 이것들을 가증하다고 하셨다(레 11:1-47). 그리고 금지된 성적인 행위 등을 가증하다고 하시며 금지하셨다(레 18:22, 26-27). - 하나님의 이름은 곧 성품과 속성을 증거해 주며, 더 나아가 그 분의 존재 자체와 인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그 곳에 계시하시고, 또한 당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는 의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